

모순을 꽃처럼 두는 방식

지선경

빛이 가장 가득한 오후, 혹은 일상의 한가운데서 어떤 사물의 표면이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늘 보던 책상, 매일 쥐던 컵, 익숙한 벽면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각자의 역할을 아주 잠깐 잊은 것처럼 보인다. 컵은 컵인 채로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벽은 벽인 채로 오래전의 장면을 불러오며, 표면은 조용히 자기 뒤쪽을 의심하게 만든다.

나는 사물이 원래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을 따라간다. 그때 익숙한 장면은 더 이상 하나의 기능이나 이름 안에 머물지 않고, 색과 빛, 선과 구조 사이에서 다른 질서를 시험한다. 이 이동은 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사물이 자기 자리를 약간 비켜 앉는 일에 가깝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 생기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감각의 층위가 천천히 드러난다.

하루가 열리기 전의 시간, 겹쳐 열리는 기억의 층, 차갑게 멈춘 표면, 중첩된 원의 리듬, 생기 어린 색과 기호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한 공간 안에 놓인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의 서사로 서둘러 묶기보다, 각자가 가진 속도와 온도를 유지한 채 다시 배열한다. 작업 안에서 태양은 고정된 중심이 아니라 이동하는 형상이 되고, 물결은 차가운 표면 위에 잠시 머물다. 원은 겹쳐진 상태로 다른 리듬을 만들고, 딸기의 생기와 속도감은 과일의 자리를 떠나 색과 형태의 반복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빛은 사물을 설명하는 조명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조건이 된다. 색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포착된 감각의 단위로 남고, 선과 구조는 시선이 지나가는 경로를 만든다. 콜라주와 레이어링,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료, 다공성의 표면은 앞과 뒤, 안과 밖의 경계를 느슨하게 한다. 그 앞에 선 몸은 완성된 장면을 보는 대신, 표면들 사이에 숨어 있던 작은 우회로들을 하나씩 발견한다.

서로 다른 파편들을 서둘러 묶기보다, 그 어긋남과 지연의 상태를 그대로 배치해보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모순을 꽃처럼 두는 방식’이다. 여기서 모순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잠시 자리를 얻은 서로 다른 기류와 리듬이다. 그것들은 한 화면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지 않고, 각자의 방향으로 조금씩 어긋난 채 머물다.